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해당행위자 중징계”

광주 서구·목포·나주·강진·곡성·구례군의회 대상
민주 광주시당·전남도당 당지침 어긴 의원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소속 의원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각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과 손을 잡는 등 해당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2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시당에서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원 총회에서 오광교 의원을 의장 후보에 호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날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 후보가 선임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당규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약했다.

하지만, 막상 2일 열린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영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재석 의원 13명 중 8명이 김 의원을 지지했다. 서구의회는 민주당 9명, 민주평화당 2명, 무소속과 민중당 각 1명씩이다. 시당은 조사를 통해 당 지침을 어긴 의원과 해당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목포시의회 등 도내 5개 시군 의회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해당 행위자’를 적발, 최고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은 민주당 소속 목포·나주시의회와 강진·곡성·구례군의회 의원들이다. 이들 지역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 전 당내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미

리 선출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출법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거쳐 의장단 단독 후보를 사전에 선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내려보냈다. 과거 일부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을 접하고서도 소속 의원들이 상대 정당 및 무소속 후보들에게 표를 던져 의회 운영을 주도하지 못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였다.

목포시의회 등 5곳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지침을 어겨 당내 경선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본선에서 타당 후보가 선출되거나 사전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강진군의회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 등 이 같은 지침을 어겨 당내 경선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본선에서 타당 후보가 선출되거나 사전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강진군의회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들 등 이 같은 지침을 어겨 당내 경선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본선에서 타당 후보가 선출되거나 사전 경선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선에 반발해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당 지침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전남도당은 보고 있다. 해당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열리는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당이나 경남도당처럼 제명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내 경선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정한 것은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침을 어기고 다른 정당 후보 등에게 표를 던진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만든다

전남도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0호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해까지 388호를 지정했으며, 올해 65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자발적인 가축 사양관리를 비롯 축사 정리정돈,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 조화 등 축산환경이 우수한 농장을 말한다.

지정을 희망한 축산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할 경우, 시군의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농립축산식품부가 지정한다. 지정은 5년간 유효하다.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현대화 사업,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정책 사업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내 축산농가는 환경 개선으로 경관, 악취 등을 잘 관리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닷 올렸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개교식 교육생 11월까지 800시간 이수

광주시는 2일 광주 인공지능(AI) 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교식은 80명 교육생이 참여해 오리엔테이션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교식은 현판식, 교장 임명식으로 대체됐다.

교육은 서울에서 코딩 교육으로 명성을 쌓은 ‘멋쟁이사자처럼’이 주관한다.

교육생들은 매일 8시간, 11월까지 80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정규수업 후에는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연구실 박사과정 출신들이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엘리스’를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

교육장은 광주 첨단 과학산업단지 내에

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 2층에 있다.

사관학교는 60명 수용 규모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통학 교육생에게는 교육 장려금을 준다. 끝장 토론, 성과보고회를 열어 우수 교육생에게는 시상금과 선진지 연수 등 기회도 생긴다.

이용섭 시장은 “인공지능사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양성 산실로 발전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와 AI 4대 강국 대한민국을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전남도, 휴가철 대비 낚시어선 안전 점검

838척 대상 무작위 점검

부작성 및 신분증 대조 확인여부 등이다.

전남도는 10일까지 여름 휴가철 대비와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낚시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낚시어선 입출항이 많은 항포구의 낚시어선 838척을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에 나선다.

점검 사항은 출항 전 안전점검 실시, 비상 대응 요령 안내, 구명조끼 착용, 승선자 명

부작성 및 신분증 대조 확인여부 등이다.

또 ‘낚시어선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 비치와 낚시객 간 2m 이상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여부 등도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GS리테일, 농축산물 1500억 구매 업무협약

전남도는 2일 유통기업 ㈜GS리테일과 전남산 농수축산물 1500억원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전남 농수산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GS리테일은 ▲전남 농수축산물의 지속적인 공급과 판매 확대 ▲농수축산물을 이용한 가정간편

식, 밀키트 등 다양한 신제품 공동 개발 ▲GS수퍼마켓과 GS25편의점, 온라인 쇼핑 물에 전남 농수축산물 직접 확대 등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GS리테일은 GS25편의점 1만5000여 개소와 GS수퍼마켓 319개 매장,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종합 유통기업이다. 매년 800억 원 상당의 전남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국·과장급 26명 전보 인사

광주시는 2일 국·과장급 26명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3급 전보는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3명이다.

광주시는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배부환 군공항정책과장이 군공항추진본부장을 법정 대리하도록 했다.

4급에서는 비서실장에 고시 출신 4대

인 이정식 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과장급 23명이 전보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17일까지 5급 이하 전보 인사까지 마무리하겠다”며 “1년 미만 전보 제한 원칙을 유지하면서 본인 희망을 우선 반영하고 특히 상수도 사업본부 인사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실·국장 프로필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민선 7기들어 광주시청 혁신과 인사를 담당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폭 넓은 대인 관계가 장점으로 꼽힌다. ▲혁신정책관 ▲군공방이전사업단장 ▲홍보총괄담당
강영숙 여성가족국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둑하다. 업무 추진이 꼼꼼하고, 추진력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총무과장 ▲세정담당관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남대 수의학과 박사 출신으로, 코로나19 검사체계를 조기에 확립해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공이 컸다는 평가다.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조사과장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광주에서 30~40분 소요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